

The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al Stress and Sense of Teaching Efficacy in Child-Care Center Teachers

영유아교사의 변인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교수효능감과의 관계

InJu Hwang, Bucheon University, South Korea

Abstract: The study examines the relations between child-care center teachers' occupational stress and teaching efficacy. The subjects were 185 teachers at a child-care center in South Korea. In order to examine the teachers' occupational stress and teaching efficacy, Clark's (1980) "Modified Teacher Occupational Stress Factor Questionnaire," and Enochs & Riggs's (1990)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 were us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First, child-care center teachers are under a somewhat high level of stress at work, and the higher the academic level, the higher the stress that was felt at work (2). Second, It was revealed that the teaching efficacy of the teachers was slightly higher the more experience they had. (3) Third, It turns out that the occupational stress and teaching efficacy of teachers are correlated with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KEYWORDS: Child-care center teachers in South Korea, occupational stress, teaching efficacy.

I. 서론

현대사회가 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지면서 어린연령부터 영유아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영유아란 영아와 유아를 통칭하여 일컫는 말로 영아는 생후 0~36개월, 유아는 36~72개월까지 초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의 아동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된 2003년 이후로 어린 연령의 영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표1>과 같이 1996년 403,001명에서 2016년 12월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는 총

1,451,215명에 이르고 있다. 즉 20년 동안 3배 이상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1> 2016년 12월 어린이집 연도별 보육아동 현황

구 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단체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2016	계	1,451,215	175,929	99,113	45,374	745,663	328,594	4,240	52,302
	남	750,122	91,124	52,038	23,638	385,046	168,970	2,197	27,109
	녀	701,093	84,805	47,075	21,736	360,617	159,624	2,043	25,193
2015	계	1,452,813	165,743	99,715	46,858	747,598	344,007	4,127	44,765
	남	750,621	85,961	52,333	24,279	385,507	177,103	2,166	23,272
	녀	702,192	79,782	47,382	22,579	362,091	166,904	1,961	21,493
2014	계	1,496,671	159,241	104,552	49,175	775,414	365,250	3,774	39,265
	남	773,987	82,306	55,049	25,478	400,579	188,152	2,012	20,411
	녀	722,684	76,935	49,503	23,697	374,835	177,098	1,762	18,854
2013	계	1,486,980	154,465	108,834	51,684	770,179	364,113	3,226	34,479
	남	768,523	79,934	57,048	26,670	397,270	187,899	1,735	17,967
	녀	718,457	74,531	51,786	25,014	372,909	176,214	1,491	16,512
2012	계	1,487,361	149,677	113,049	51,914	768,256	371,671	2,913	29,881
	남	769,573	77,321	59,562	26,867	397,021	191,722	1,572	15,508
	녀	717,788	72,356	53,487	25,047	371,235	179,949	1,341	14,373
2011	계	1,348,729	143,035	112,688	50,676	706,647	308,410	2,286	24,987
	남	699,806	73,850	59,408	26,341	366,164	159,878	1,248	12,917
	녀	648,923	69,185	53,280	24,335	340,483	148,532	1,038	12,070
2010	계	1,279,910	137,604	114,054	51,126	671,891	281,436	1,898	21,901
	남	665,305	71,195	60,124	26,846	348,844	146,009	1,051	11,236
	녀	614,605	66,409	53,930	24,280	323,047	135,427	847	10,665
2009	1,175,049	129,656	112,338	52,718	623,045	236,843	1,655	18,794	
2008	1,135,502	123,405	113,894	53,818	615,647	210,438	1,491	16,809	
2007	1,099,933	119,141	118,211	55,906	612,484	177,623	1444	15,124	
2006	1,040,361	114,657	120,551	58,808	582,329	148,240	1238	14,538	
2005	989,390	111,911	125,820	56,374	552,360	129,007	933	12,985	

2004	930,252	107,335	135,531	48,414	507,398	119,787	미분류	11,787
2003	858,345	103,474	140,994	37,911	461,640	103,935	미분류	10,391
2002	800,991	103,351	142,035	30,289	425,647	90,939	미분류	8,730
2001	734,192	102,118	161,419	16,483	369,044	77,247	미분류	7,881
2000	686,000	99,666	157,993	15,949	336,625	67,960	미분류	7,807
1999	640,915	99,866	151,652	13,195	301,630	67,294	미분류	7,278
1998	556,957	91,260	141,616	9,290	250,000	58,968	미분류	5,823
1997	520,959	89,002	123,567	6,727	227,951	68,467	미분류	5,245
1996	403,001	85,121	99,119	2,735	153,990	58,440	미분류	3,596

영유아기는 수유, 급·간식, 수면, 청결 등의 양육에 해당되는 돌봄과 각 연령대에 적합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적 환경과 성인의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교육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하는 발달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시기는 무엇보다도 성인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다른 시기보다 절대적으로 높은 만큼 영유아를 돌보는 교사의 자질과 능력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유아교사가 교사로서 요구되는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과 관련된 직무스트레스와 교수효능감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스트레스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한다. 직무스트레스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 사물, 혹은 사건으로 인하여 경험하는 불쾌한 정서를 의미한다(박은혜, 2004). 영유아교사의 직무는 지속적인 돌봄과 양육이 필요한 어린 영유아들과 생활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직장인들과는 달리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특별한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 따라서 교사들의 경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물리적, 개인적, 환경적(조직 풍토적) 요인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김정희와 고흥화(1994)는 교사들의 스트레스 유발요인으로 과업요인, 물리적 요인, 역할요인, 대인관계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유치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교사들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은 업무와 관련된 것이었다. 특히 수업에 필요한 교재의 부족, 수업 준비 시간의 부족, 많은 행사와 잡무 등이 스트레스 유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선우, 2004; 송유진, 1993; 정향림, 2005).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원아관리, 학부모와의 관계, 경제적 요인, 업무관련, 동료교사와의 관계의 순으로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최금란, 2012).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교사의 실제적인 교수학습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직무스트레스가 낮을 경우 교사민감성, 몰입, 조직효과성, 교사의 상호작용, 조직헌신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권경아, 김송이, 2015; 노수진, 이경님, 2015; 유계숙, 김수경, 강경화, 박지혜, 황지영, 2011; 이은숙, 노수진, 이경님, 2016), 직무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이직의도, 소진 등이 높게 나타났다(박은주, 문태형, 2011; 유현숙, 권정해, 2017; 홍석영, 2012). 이처럼 직무스트레스는 교사가 실제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영유아를 교육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수효능감은 교수 학습에 대한 일반적인 신념과 어떤 결과를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개인적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교사 자신이 학생의 성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 정도를 말한다(박성혜, 2015). Gibson과 Dembo (1984)는 교수효능감을 일반교수효능감과 개인교수효능감으로 구분하였다. 일반교수효능감이란 가정환경, 배경, 학교환경, 학생의 지능 등과 같은 외적 요인들을 교사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이며, 개인교수효능감은 학습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교사 자신의 개인적 평가라 하였다(류원석, 2008).

교수효능감은 교사의 교육실제에서 교육의 내용과 교사의 교수법에 영향을 주게 된다. 박은영(2009)은 교사의 놀이교수효능감이 높을 경우 실제 교사의 교수행동과 유아의 놀이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김순남(2000)은 교수효능감이 높은 유아교사는 낮은 유아교사보다 실제 역할 수행할 때 보다 유아 중심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전개하여 유아의 발달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보인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노수진, 이경님(2015)의 연구에서 영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의 경우 교사의

민감성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다. 영아반 교사의 놀이교수효능감은 실제 영아와의 상호작용과 높은 관련이 있었다(권경아, 김송이, 2015). 또한,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높을수록 이직의도, 소진 등의 부정적인 변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현숙, 권정해, 2017; 홍석영, 2012).

이와 같이 영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교수효능감은 실제 영유아교사의 업무 수행과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교사의 변인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교수효능감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로써 영유아교사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유능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교사 변인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는 어떠한가?
2. 영유아교사 변인에 따른 교수효능감은 어떠한가?
3. 영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교수효능감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연구대상은 총 185명으로 연구대상의 배정은 <표2>와 같다.

<표2> 연구대상 영유아교사의 교육경력, 담당 영유아 연령, 학력

(n=185)

변인	구분		빈도(%)	
교육경력	1년 미만		7(3.8)	
	1년 이상~3년 미만		26(14.1)	
	3년 이상~5년 미만		24(13.0)	
	5년 이상~10년 미만		76(41.1)	
	10년 이상		52(28.1)	
담당 영유아 연령	영아	만 0세	131(70.8)	22(11.9)
		만 1세		52(28.1)
		만 2세		57(30.8)
	유아	만3세	54(29.2)	22(11.9)
		만4세		17(9.2)
		만 5세		15(8.1)
학력	고졸		63(34.1)	
	전문대졸		87(47.0)	
	대졸이상		35(18.9)	

<표2>와 같이 연구대상 교사의 교육경력은 1년 미만이 7명(3.8%), 1년 이상~3년 미만이 26명(14.1%), 3년 이상~5년 미만이 24명(13.0%), 5년 이상~10년 미만이 76명(41.1%), 10년 이상이 52명(28.1%)로 나타났다. 담당 영유아 연령은 영아가 131명(70.8%), 유아가 54명(29.2%)이었다. 연구대상 교사의 학력은 고졸이 63명(34.1%), 전문대졸이 87명(47.0%), 대졸이상이 35명(18.9%)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직무스트레스

영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장미아(1996)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Clark(1980)이 개발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요인 질문지(Modified Teacher Occupational Stress Factor Questionnaire)’를 권기태(1990)가 번안하고, 김지현(1994)이 수정 보완하였다. 직무스트레스를 알아보는 이 도구는 총 3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은 ‘유아들과의 활동요인’, ‘업무관련요인’, ‘행정적 지원요인’, ‘대인관계요인’, ‘경제적 안정요인’, ‘개인관련요인’ 6개 영역이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의 4점부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의 1점까지 4단계로 이루어진 Likert 척도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직무스트레스의 전체 신뢰도는 .938이고, 하위요인별 문항의 내용과 신뢰도는 다음 <표3>과 같다.

<표3>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 문항번호와 요인별 신뢰도

변인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직무스트레스	유아들과의 활동요인	1,2,3,4,5	5	.663
	업무관련요인	6,7,8,9,10,11,12,13,14	9	.823
	행정적 지원요인	15,16,17,18,19,20,21,22	8	.890
	대인관계요인	23,24,25,26,27,28,29,30,31,32,33	11	.849
	경제적 안정요인	34, 35	2	.406
	개인관련요인	36, 37	2	.588
	계		37	.938

2) 교수효능감

교수효능감 검사는 Enochs와 Riggs (1990)가 개발한 과학 교수효능감 검사(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STEBI)를 교수효능감 부분만 영유아교사에게 적절하게 수정하여 보완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하위요인은 ‘일반교수효능감’과 ‘개인교수효능감’ 2개 요인이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의 4점부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의 1점까지 4단계로 이루어진 Likert 척도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교수효능감의 전체 신뢰도는 .808이고, 하위요인별 문항의 내용과 신뢰도는 다음 <표4>와 같다.

<표4> 교수효능감의 하위요인별 내용과 요인별 신뢰도

변인	하위요인	내용	문항수	신뢰도
교수효능감	일반교수효능감	교사가 영유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	12	.674
	개인교수효능감	교사 자신이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감	13	.822
	계		25	.808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7년 5~6월에 진행되었다. 경기도에 소재한 어린이집 교사 중 보수교육과

승급교육에 참여한 교사에게 질문지를 배포하고 작성 후 그 자리에게 곧바로 회수하였다. 총 200부 중 답변에 누락이 있어 사용될 수 없는 질문지를 제외한 185부가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질문지는 영유아교사의 일반적 배경을 묻는 질문을 포함하여 영유아교사의 일반적인 변인, 직무스트레스, 교수효능감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for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영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교수효능감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각각의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영유아교사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교수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인 *t* 검증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직무스트레스와 교수효능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변량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영유아교사 변인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영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표5> 영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n*=185)

변인	하위요인	평균	표준편차
직무스트레스	유아들과의 활동요인	2.22	.45
	업무관련요인	2.49	.52
	행정적 지원요인	2.19	.63
	대인관계요인	1.91	.52
	경제적 안정요인	2.06	.66
	개인관련요인	2.06	.66
	계	2.16	.44

영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2.16(.44)이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업무관련요인의 스트레스가 2.49로 가장 높았으며 대인관계요인은 1.91로 가장 낮았다.

다음은 경력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경력별로 직무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지 독립변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6> 영유아교사의 경력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평균, 표준편차와 독립변인 *t* 검증

변인	하위요인	경력0~3년 (<i>n</i> =33)	경력 3년 이상 (<i>n</i> =152)	<i>t</i>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직무스트레스	유아들과의 활동요인	2.31(.41)	2.20(.46)	1.265
	업무관련요인	2.39(.41)	2.51(.54)	-1.170
	행정적 지원요인	2.14(.52)	2.20(.66)	-.444
	대인관계요인	1.98(.44)	1.89(.53)	.857
	경제적 안정요인	2.09(.55)	2.05(.63)	.267
	개인관련요인	2.01(.55)	2.07(.68)	-.449
	계	2.16(.33)	2.16(.46)	.009

영유아교사의 경력별 직무스트레스는 경력 3년 미만의 교사와 3년 이상의 교사 사이에 평균 2.16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역시 3년 미만의 교사와 3년 이상의 교사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유아들과의 활동요인’, ‘대인관계요인’, ‘경제적 안정요인’에서 3년 미만의 교사들이 유의하지는 않지만 직무스트레스를 더 느끼는 것으로, ‘업무관련요인’, ‘행정적 지원요인’, ‘개인관련요인’에서 3년 이상의 교사가 직무스트레스를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영유아교사의 담당 영유아 연령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표7> 영유아교사의 담당 영유아 연령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평균, 표준편차와 독립변인 *t* 검증

변인	하위요인	영아담당(<i>n</i> =131)	유아담당(<i>n</i> =54)	<i>t</i>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직무스트레스	유아들과의 활동요인	2.14(.45)	2.26(.45)	-1.739
	업무관련요인	2.42(.58)	2.50(.49)	-.991
	행정적 지원요인	2.19(.69)	2.17(.60)	.177
	대인관계요인	1.84(.50)	1.92(.54)	-1.044
	경제적 안정요인	2.09(.63)	2.01(.62)	.852
	개인관련요인	2.10(.69)	2.03(.64)	.712
	계	2.12(.46)	2.17(.43)	-.724

영유아교사의 담당 영유아 연령별 직무스트레스는 영아담당 교사와 유아담당 교사 사이에 각각 평균 2.12와 2.17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아담당 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역시 영아담당 교사와 유아담당 교사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행정적 지원요인’, ‘경제적 안정요인’, ‘개인관련 요인’에서 영아담당 교사들이 유의하지는 않지만 직무스트레스를 더 느끼는 것으로, ‘유아들과의 활동요인’, ‘업무관련요인’, ‘대인관계요인’에서 유아담당 교사가 직무스트레스를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영유아교사의 학력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표8> 영유아교사의 학력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평균, 표준편차와 분산분석

변인	하위요인	고졸(<i>n</i> =63)	전문대졸(<i>n</i> =87)	대졸이상(<i>n</i> =35)	<i>F</i>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직무스트레스	유아들과의 활동요인	2.14(.50)	2.32(.39)	2.34(.49)	.482
	업무관련요인	2.33(.53)	2.51(.47)	2.72(.56)	1.708**
	행정적 지원요인	2.11(.68)	2.22(.57)	2.25(.71)	.294
	대인관계요인	1.83(.55)	1.92(.44)	2.02(.62)	.403
	경제적 안정요인	2.03(.62)	2.07(.59)	2.10(.66)	.060
	개인관련요인	1.94(.66)	2.12(.61)	2.12(.75)	.663
	계	2.06(.49)	2.18(.37)	2.28(.51)	.573

** $p < .01$

영유아의 교사의 학력별 직무스트레스는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의 평균이 각각 2.06, 2.18, 2.28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대졸이상이 가장 높고, 전문대졸, 고졸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업무관련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졸이상이 2.72로 가장 높고, 전문대졸 2.51, 고졸 2.33으로 나타났다($F=1.708, p<.01$). ‘업무관련요인’ 이외의 하위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든 하위요인에서 대졸이상의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고졸의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영유아교사 변인에 따른 교수효능감

영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의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표9> 영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n=185)

변인	하위요인	평균	표준편차
교수효능감	일반교수효능감	2.90	.30
	개인교수효능감	2.95	.33
	계	2.93	.26

영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은 2.93(.26)이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일반교수효능감은 2.90, 개인교수효능감은 2.9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음은 경력에 따른 교수효능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경력별로 교수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 독립변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10> 영유아교사의 경력에 따른 교수효능감의 평균, 표준편차와 독립변인 t 검증

변인	하위요인	3년 미만 (n=33)	3년 이상 (n=152)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교수효능감	일반교수효능감	2.82(.27)	2.92(.31)	-1.643
	개인교수효능감	2.83(.32)	2.98(.33)	-2.252*
	계	2.82(.25)	2.95(.26)	-2.525**

**p<.01, *p<.05

영유아교사의 경력별 교수효능감은 경력 3년 미만의 교사와 3년 이상의 교사 사이 평균이 각각 2.82, 2.95로 경력 3년 이상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2.525, p<.01). 교수효능감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일반교수효능감은 3년 미만이 2.82, 3년 이상이 2.92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3년 이상 영유아교사의 평균이 높았다. 개인교수효능감의 경우 3년 미만의 교사와 3년 이상의 교사 사이의 평균이 각각 2.83과 2.98로 3년 이상의 교사의 개인교수효능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2.252, p<.05).

다음은 영유아교사의 담당 영유아 연령에 따른 교수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표11> 영유아교사의 담당 영유아 연령에 따른 교수효능감 평균, 표준편차와 독립변인 t 검증

변인	하위요인	영아담당(n=131)	유아담당(n=54)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교수효능감	일반교수효능감	2.94(.30)	2.89(.31)	1.030
	개인교수효능감	2.97(.34)	2.95(.33)	.323
	계	2.95(.27)	2.92(.25)	.739

영유아교사의 담당 영유아 연령에 따른 교수효능감은 영아담당 교사와 유아담당 교사 사이 평균이 각각 2.95, 2.92로 유의하지 않지만 영아담당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교수효능감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일반교수효능감은 영아담당교사가 2.94, 유아담당 교사가 2.89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영아담당 교사의 평균이 높았다. 개인교수효능감의 경우 영아담당 교사와 유아담당 교사 사이의 평균이 각각 2.97과 2.95로 유의하지 않지만 영아담당 교사의 개인교수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영유아교사의 학력에 따른 교수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표12> 영유아교사의 학력에 따른 교수효능감 평균, 표준편차와 분산분석

변인	하위요인	고졸(<i>n</i> =63)	전문대졸(<i>n</i> =87)	대졸이상(<i>n</i> =35)	<i>F</i>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교수 효능감	일반교수효능감	2.94(.26)	2.88(.31)	2.90(.36)	.073
	개인교수효능감	2.99(.34)	2.93(.34)	2.92(.26)	.084
	계	2.96(.24)	2.96(.28)	2.91(.25)	.069

영유아교사의 학력에 따른 교수효능감은 학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교수효능감의 평균은 고졸 2.96, 전문대졸 2.96, 대졸이상 2.91로 나타났다. 교수효능감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일반교수효능감은 고졸 2.94, 전문대졸 2.88, 대졸이상 2.90, 개인교수효능감은 고졸 2.99, 전문대졸 2.93, 대졸이상 2.92로 전반적으로 대졸이상보다 고졸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유의하지는 않지만 높게 나타났다.

3. 영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교수효능감과의 관계

영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교수효능감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는 <표13>과 같다.

<표13> 영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교수효능감 하위영역별 상관관계

		직무스트레스							교수효능감		
		1. 유아들과의 활동	2. 업무관련	3. 행정적지 원	4. 대인관계	5. 경제적안 정	6. 개인관련	7. 계	8. 일반	9. 개인	10. 계
직무스 트레스	1	1									
	2	.548***	1								
	3	.554***	.681***	1							
	4	.573***	.491***	.640	1						
	5	.330***	.504***	.498***	.433***	1					
	6	.430***	.488***	.579***	.546***	.499***	1				
	7	.723***	.814***	.883***	.849***	.606***	.684***	1			
교수효 능감	8	-.106	-.038	.062	-.011	-.006	.024	-.009	1		
	9	-.344***	-.221**	-.226**	-.208**	-.121	-.253***	-.281***	.342***	1	
	10	-.283***	-.164*	-.111	-.139	-.079	-.151*	-.187**	.784***	.851***	1

*** $p < .001$, ** $p < .01$, * $p < .05$

영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교수효능감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187$, $p < .01$). 교수효능감 중 일반교수효능감은 직무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교수효능감

중 개인교수효능감은 직무스트레스의 ‘유아들과의 활동’($r=-.344, p<.001$), ‘업무관련’($r=-.221, p<.01$), ‘행정적지원’($r=-.226, p<.01$), ‘대인관계’($r=-.208, p<.01$), ‘개인관련’($r=-.253, p<.001$) 요인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교수효능감 전체와는 직무스트레스의 ‘유아들과의 활동’($r=-.283, p<.001$), ‘업무관련’($r=-.164, p<.05$), ‘개인관련’($r=-.151, p<.05$) 요인에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영유아교사의 변인과 직무스트레스, 교수효능감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대체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영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대체적으로 4점 만점에 2점을 넘는 평균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업무관련요인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유아들과의 활동요인 순이었다. 유아들과의 활동요인과 업무요인은 영유아교사의 주요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교사들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은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민선우(2004), 송유진(1993), 정향림(200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교사들은 박은혜(2004)가 제시하였듯이 수업에 필요한 교재의 부족, 수업준비 시간의 부족, 많은 행사와 잡무 등의 업무에서 과중함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영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중 대인관계요인, 경제적 안정요인, 개인관련요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영유아교육기관은 대부분 작은 규모로 운영되며 구성원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료나 원장과의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이직을 고려할 정도의 심각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영유아교사들이 대인관계 요인에서 덜 스트레스를 받으며 경제적, 개인 관련 요인에서 안정된 상태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영유아교사의 경력, 담당 영유아 연령, 학력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경력과 담당 영유아 연령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학력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에는 차이가 있었다. 박은혜(2014)의 연구에서는 영유아교사의 연령, 경력, 학력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도 낮은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인 유계숙, 김수경, 강경화, 박지혜, 황지영(2011)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교사의 학력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가 연구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교사의 학력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는 결과로 유계숙 등(201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적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직무만족도가 상승하고 교수효능감도 효과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가 경력, 담당 영유아 연령에서의 차이는 없었으나 학력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점수가 높다는 것을 유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력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이유로 학력이 높은 교사의 경우 질 높은 수업에 대한 요구가 많은 반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하여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을 수도 있다. 또 다른 이유로 영유아교육기관에서 학력이 높은 교사에게 과도한 행정적인 업무가 주어짐으로써 과도한 스트레스를 겪게 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영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을 살펴본 결과 영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은 대체적으로 4점 만점에 2점대 후반으로 중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교수효능감과 개인교수효능감과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영유아교사의 변인에 따라 교수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영유아교사의 경력에 따라 교수효능감에 차이가 있었던 반면 담당 영유아 연령과 학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영유아교사의 경력이 3년 이상으로 높을수록 교수효능감이 높았으며 특히 개인교수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개인교수효능감은 ‘교사로서 자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로 영유아교사들은 경력이 높아질수록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계숙 외(2011)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의 교수효능감은 경력이 높을수록, 담당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교사의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변인으로 교사의 경력이 일관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유아교육의 경우 이론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실제 영유아와 생활하면서 얻게 되는 경력교사로서의 실제적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실제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 등에서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올라간다고 할 수 있다. 즉 교사의 경력이 올라감에

따라 교사가 얻게 되는 실제적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직무스트레스와 교수효능감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교수효능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개인교수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의 경우 일반교수효능감과 개인교수효능감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직무스트레스가 일반교수효능감보다 개인교수효능감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유아교사의 경우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교사로서 자신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직무스트레스가 교사의 교수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교사의 경우 직무스트레스의 '경제적 안정'을 제외한 '유아들과의 활동', '업무관련', '행정적 지원', '대인관계', '개인관련' 하위요인이 높을수록 개인교수효능감이 낮아지는 부적 관련이 있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의 '유아들과의 활동', '업무관련'이 높을수록 교수효능감 전체와 부적 관련이 있었다. '유아들과의 활동'과 '업무관련'은 다른 하위영역보다 영유아교사의 주요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교사들에게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교수효능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유아들과의 활동과 업무관련해서 교사들이 어려움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교사는 평균정도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업무관련 요인과 영유아 활동 관련 요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교사의 학력이 높을수록 업무관련요인에서 스트레스가 높았다. 따라서 영유아교사의 업무관련 요인에 해당하는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서류작업의 간소화, 행정업무 간소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영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은 평균보다 약간 높았으며, 특히 경력이 많을수록 개인교수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경력이 많은 교사들이 가지는 실제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현장에서의 업무수행지식에 관한 재교육을 통하여 교사의 교수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영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교수효능감은 여러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와 교수효능감은 영유아교사의 가르치고 돌보는데 있어서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참고문헌>

- 권경아, 김송이. 2015. 영아반교사의 놀이교수효능감과 직무 스트레스가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생애학회지*, 5(3): 65-80.
- 권기태. 1990.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순남. 2000. 유치원 교사의 교사 효능감에 따른 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현. 1996. 유치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교육활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덕. 2014.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자아개념 및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요인간의 관계.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 고희화. 1994.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연구*. 서울:배영사.
- 노수진, 이경님. 2015. 영아교사의 보육효능감과 자아탄력성 및 직무스트레스가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14(3): 93-114.
- 류원석. 2008. 유치원 교사의 교사 효능감 수준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52, 43-62.
- 민선우. 2004. 유아교사의 자아개념과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만족도와와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영. 2009. 교사의 놀이 교수효능감에 따른 교수행동 및 유아 놀이행동의 차이.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주, 문태형. 2011. 유아교사가 지각한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연구*, 32(2): 75-98.
- 박성혜. 2015. 유아교사의 교직적성과 자아존중감 및 교수효능감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9(2): 21

- 박은혜. 2014. *유아교사론*. 창지사.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2017. *보육통계*.
- 송유진. 1993. 유아교육기관의 조직풍토와 교사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계숙, 김수경, 강경화, 박지혜, 황지영. 2011. 보육시설의 조직문화, 초임보육교사의 배경변인, 교사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3): 81-104.
- 유현숙, 권정혜. 2017.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 조직헌신, 소진과 이직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아동교육학논집*, 21(1): 113-132.
- 이은숙, 노수진, 이경남. 2016. 영아교사의 보육헌신에 대한 자아탄력성, 직무스트레스 및 보육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분석. *아동교육*, 25(4): 5-22.
- 정향림. 2005. 공사립 유치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와의 관계: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금란. 2012. 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전주시 민간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석영. 2012. 어린이집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교사효능감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사교육연구*, 51(2): 271-281.
- Clark, E. H. 1980. "An Analysis of Occupational Stress Factors as Perceived by Public School Teachers." Doctoral Dissertation, Auburn University.
- Enochs, L. G., & I. M. Riggs. 1990. "Further Development of an Elementary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 A Preservice Elementary Scale." *School Science and Mathematics* 90(8): 694-706.
- Gibson, S., & M. H. Dembo. 1984. "Teachers Efficacy: A Construct Valid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4): 569-582.

~ ~ ~